

정만대 일병 유해, 66년만에 돌아와

군산에서 입대 후 6·25 전쟁 중 전사... 진천 봉화산 411고지에서 유해 발굴·유족에게 전달

군산에서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고(故) 정만대 일병의 유해가 66년 만에 유족에게 전달됐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6일 정 일병의 유가족 집을 방문해 전사자 신원확인통지서와 위로패, 유해수습 시 관을 덮었던 태극기 등을 정 일병의 조카 정상범씨(57)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유단에 따르면 정 일병은 1930년 황해도 연안군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낸 후 부모님을 따라 중국 길림성으로 이주, 군산으로 혼자 돌아와 1948년 6월 국방경비대에 입대했다.

정 일병은 1950년 6·25전쟁 초기, 국군 제1군단 예하 수도사단 1연대에 소속돼 충청북도 진천 및 미호천(청원) 일대에서 방어 전투에 참가했다.

정 일병은 1950년 7월9일과 10일, 문안산과 봉화산 일대 탈환 과정에서 북한군 2사단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던 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유단은 지난해 11월 진천의 봉화산 411고지에서 전투화 밑창 2점과 전투복에 달려 있던 단추 등과 함께 정 일병의 유해를 발굴했다.

이에 국유단은 정 일병 유해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법의인류학적 감식과 함께 확보돼 있는 유가족들의 유전자(DNA) 비교분석을 통해 친족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마침 지난 2010년 정 일병의 남동생 정금대(73)씨가 6·25전쟁 전사자 유가족을 찾는다든 보건소의 안내문을 보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기에,



영웅의 귀환 6일 오후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고(故) 정만대 일병의 친척집(군산시 화현면)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갖고 국방부장관명의로 위로패를 정 일병의 조카에게 전달했다.

감식단은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를 비교분석할 수 있었다.

유전자 비교분석 결과, 정금대씨가 정 일병의 유가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국유단은 전북 군산에 살고 있는 조카 2명을 직접 방문해 유전자

시료채취를 진행하는 등 추가 분석작업을 거쳐 지난 8월24일 유해의 신원을 최종 확인했다.

정 일병 유해는 추후 유가족들과 협의의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이하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육

군 대령)은 "아직도 이름 모를 산아에는 12만 4,000여 명의 전사자 분들이 묻혀 계시기 때문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영웅들을 하루빨리 가족의 품에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군산=문정근 기자

내일 '전북음식문화대전' 개최

9일까지 김제 시민운동장에서

도내 최고의 맛 경연대회인 제11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이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김제시민운동장에서 열리게 된다.

전북음식문화대전은 국내 최고의 음식문화축제로 전통과 향토의 맛과 멋이 어우러진 우수한 전북 음식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맛의 고장으로써 명맥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행사 첫날인 8일은 고등부, 대학부, 일반인, 다문화가족 등 총 68개팀 참여해 창작웰빙음식경연대회를 펼칠 예정이다.

9일에는 도내 향토·모범 및 일반음식점에서 선정된 68개 업체에서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통하여 전

라북도 향토음식이 발굴될 예정이다. 또한 출품음식전시와 2016인분 비빔밥 행사·무료식기 기회도 마련된다.

이 외에도 북한음식, 궁중음식, 사찰음식 등이 전시되고 천연염색, 떡메치기, 맷돌돌리기, 김치담그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준비된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도내 우수한 맛과 조리법 등을 소개하고 도내 향토음식을 발굴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음식문화대전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성공적인 음식문화대전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김제=곽노태 기자

고창군 '문화재 夜行' 사업대상 선정

내년 4월부터 고창농악시연·성곽길 답사 등 시행

고창군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신규 현안사업이 선정되는 등 지역사업이 순풍에 돛단 듯 순항 중이다.

국회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당, 정읍고창)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2017년 문화재 夜行 사업대상으로 고창군 등을 선정했다"고 알려졌다.

역사·문화자원과 야간프로그램을 융합한 '문화재 야행'은 문화재청이 올해 처음 시행한 사업으로 도내에서는 군산시가 선정, 지난 8월13·14일 양일간 '여름밤, 근대문화유산 거리를 걷다'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

'뿌리깊은 역사·문화의 향'을 주제로 선정된 '고창야행'은 '향토풍류의 진수 고창농악시연, 조상의 숨결이 있는 성곽길 답사, 게 셋거라! 고을 현감 행차' 등 관광과 체험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이번 '고창야행'의 선정으로 세계문화유산과 유네스코 청정자연생태 보전지역, 문화재 보고의 고장으로서 고창군에 안정적인 체계적인 관광 콘텐츠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기존 '고창-서울' 시외버스 사업계획을 변경, '정안휴게소'를 중간 정차지로 추가했다.

그동안 고창에서 서울 이외의 수도권 도시를 가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서울을 거쳐서 가도록 하는 현행 시스템의 번거로움과 부담함을 해소해 왔으며, 그 대안으로 '정안휴게소'에서 정차, 환승시스템 도입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져 왔다.

이번 '환승시스템 도입'으로 서울 이외 수도권 지역을 가고자 하는 군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부 쌀값 안정대책 발표... "남는 쌀 전량 수매"

신곡 초과물량 30만톤 내외 추정...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 마련 계획

정부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 생산량 가운데 수요량을 초과하는 전량에 대해 수매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확정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올해 쌀 생산량 가운데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내 시장 격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물량은 통계청의 수확량 발표 시점에 따라 격리물량을 산정하고 11월 실수확량 발표 시점에 최종 물량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정부 양곡을 시장에 방출하지 않기로 해 쌀값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쌀 수확기 동안 밥쌀용 수입쌀의 방출을 감축하거나 중단하고, 국내산 수입쌀 혼합 유통 특별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또 "지난 9월 25일자 산지 쌀값이 13만 3000원대로 전년동기 대비 16% 정도 낮은 수준이어서 시장 불안과 농업인들의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쌀값이 하락하더라도 농가 수취가격은 목

표가격인 18만18000원의 96.5% 수준에서 보전된다"고 밝혔다.

올해 쌀 직불금 예산은 고정직불금이 8240억원, 변동 직불금이 9777억원 책정돼 있다.

예산안 기준으로 1ha당 쌀 직불금으로 지난해보다 37만원 증가한 237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정부는 또 공공비축미 36만톤과 해외공여용 3만톤의 매입도 연말까지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으며, 사료용 쌀을 올해 10만1000톤(2012년산)에서 내년 25만톤(2013년산)으로 추가 공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쌀값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쌀 초과공급 해소를 위해 친환경 농업 육성 등 고품질 쌀 생산 및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유도하고, 쌀 직불제 개편 등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쌀 소비 확대를 위해 기업과 협력을 통해 명품쌀 활용 프랜차이즈 육성, 아침간편식 확산, 쌀 가공제품 R&D 및 수출확대 등에도 노력키로 했다.

농지와 관련해선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연내 마무리하는 한편, 추가적인 농지 정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도 합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쌀 수확량 추정치는 420만톤으로 수요량 390만톤 정도를 제외하면 신곡 초과물량은 30만톤 내외로 농식품부는 추산하고 있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지사장 박중기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